

남성 배려요소가 특화된 아파트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Apartment unit plan focused on specialized features for male residents

이 효 현* 권 오 정**
Lee, Hyo-Hyeon Kwon, Oh-Jung

Abstract

In Korea, a movement for founding space for women has been popular to improve the individualistic living environment. However, Consideration for male is lacking in housing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analyze living status, using behavior of housing space, and actual state and need for male space, 2) plan apartment unit focused on specialized features for male residents.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108 men who were 30 years and older. The result of the study show that men were in need of consideration for a life of leisure, homeworking and household chores in dwelling space. Besides, most male residents didn't have their space even though they wanted it.

Keywords : Apartment unit plan, Specialized features for man, male residents

주요어 : 아파트공간계획, 남성특화요소, 남성거주자

1. 서론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안채와 사랑채는 여성공간과 남성공간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가정적 공간'안에 사랑채라는 '반(半)사회적공간'을 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채가 일가족의 사적인 공간이었다면 사랑채는 한 집안의 공적인 영역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채의 엄격함은 퇴색해갔고 우리 주택문화는 원래의 공적 성격은 잃어버리고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동시에 남성 공간의 기능도 약화 되었다.

아파트 도입 단계에서 입식전환과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서양식 주거문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공간계획은 공평하지 않은 성의 관점인 가부장적 개념과 혼합되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불편함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9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의 내부 평면설계의 다각화가 추진되었고 부부 중심의 생활에서 안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가족 중심의 생활이 되면서 LDK가 강조되었고 남녀 역할 성 평등 개념이 확산되어 주부의 가사노동을 가족 구성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된 평면이 개발되었고 별도의 주부공간 확보, 여성을 위한 파우더룸 등 여성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었다.

이에 반하여 현재 주거공간에서 남성에게 배려된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 5일제와 재택근무, 여가 생

활문화로 인하여 남성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의 취미나 업무, 가사노동이나 육아 참여 등으로 인해 집안에서 남성을 고려한 공간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에서 남성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남성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가족 중심적인 생활공간에도 남성의 배려는 주거공간에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변화와 삶의 가치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의 문헌에 제시된 사례의 분석과 가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남성의 주거 공간 사용 행태 및 생활실태, 그리고 남성공간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남성이 배려된 주거 공간 계획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30세~60세에 해당하는 남성층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120부가 배포되었고, 112부를 회수했으며, 설문문항을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10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2008년 8월 11일~ 9월 7일 이었다.

2. 조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조사 대상자의 개인

* 준회원(주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학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적 사항을 묻는 7개의 문항과 여가생활 실태에 대한 13개 문항, 업무공간에 대한 3개 문항, 가사생활에 대한 2개 문항, 남성공간에 대한 8개의 문항, 남성을 배려한 요소에 대한 16개의 문항으로 총 4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항목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료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교차분석, t검정,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을 조사하였고 주거학적 특성으로는 규모, 가족구성원, 평일 거주 시간, 휴일 거주시간을 조사하였다 (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분석

변인	f(%)	
	연령 (평균 43.06세)	30대
	40대	52(48.1)
	50대	23(21.3)
직업	전문직/기술직	36(33.3)
	사무직/관리직	35(32.4)
	서비스직/영업직	30(27.8)
	기타	2(1.9)
	없다	5(4.6)
주택규모 (평균 32.43평)	20평 미만	6(5.6)
	20-29평	36(33.3)
	30-39평	44(40.7)
	40-49평	15(13.9)
	50평 이상	7(6.5)
가족 구성원수 (평균 3.82명)	3명 이하	32(29.6)
	4명 이상	76(70.4)
가족유형	+부인	6(5.6)
	+부인+자녀	80(74.1)
	+부인+자녀+부모	10(9.3)
	기타(본인, 본인+자녀)	12(11.1)
평일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10.58시간)	10시간이하	72(66.7)
	10시간초과	36(33.3)
휴일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14.96시간)	14시간이하	56(51.9)
	14시간초과	52(48.1)

분석대상의 연령은 40대(48.1%), 30대(30.6%), 50대(21.3%)의 순으로 40대가 절반에 가까이 조사되었다. 직업은 전문직/기술직, 사무직/관리직, 서비스직/영업직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주택규모는 30~39평(40.7%), 20~29평(33.3%), 40~49평(

13.9%)의 순으로 20, 30평대 주택규모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수는 평균 3.82명으로 본인과 부인,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 가장 많았다. 평일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1시간 정도였고 주말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평균 15시간 정도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에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평일 10시간 이하 집에 머무르는 조사대상자 또는 주말 14시간 이하 집에 머무르는 조사대상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고 정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주택규모에 대한 차이를 보면 30대는 10~20평대, 40대는 30평대, 50대는 40~50평대에 비교적 많이 조사되었다. 연령대에 직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는 전문직/기술직, 사무직/관리직이 많고 40대는 서비스직/영업직이 비교적 많으며 50대는 전문직/기술직이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대상자의 여가생활, 업무생활, 가사생활과 관련된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가생활 유형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사 대상자의 여가생활 유형과 이에 따른 여가장소 및 해당 공간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가생활 유형은 TV보기(20.9%), 잠자기(14.0%), 인터넷검색(11.3%), 실외운동(11.1%)의 순으로 주로 정적인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여가생활은 거실이나 부부침실로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표 2> 여가생활 실태

여가유형	f(%)				
	여가장소		공간		
	집안	집밖	1위	2위	3위
독서 30(7.4)	29 (96.7)	1 (3.3)	개인방 11 (36.7)	부부침실 8 (26.7)	거실 6 (20.0)
			TV보기 85(20.9)	4 (4.7)	거실 68 (80.0)
영화보기 26(6.4)	15 (57.7)	11 (42.3)	거실 11 (42.3)	부부침실 5 (19.2)	개인방 1 (3.8)
			음악감상 20(4.9%)	3 (15.0)	부부침실 6 (30.0)
잠자기 57(14.0%)	57 (100)	·	부부침실 42 (73.7)	거실 9 (15.8)	개인방 3 (5.3)
			가사생활 25(6.2)	·	부엌 16 (64.0)

아이와 놀기 22(5.4)	12 (54.5)	10 (45.5)	거실 9 (40.9)	자녀방 4 (18.2)	.
실내운동 32(7.9)	4 (12.5)	28 (87.5)	거실 4 (12.5)		
실외운동 45(11.1)	1(2.2)	44 (97.8)			
인터넷검색 46(11.3)	37 (80.4)	9 (19.6)	거실 12 (26.1)	자녀방 10 (21.7)	개인방 9 (19.6)
게임하기 16(3.9)	9 (56.3)	7 (43.8)	거실 5 (31.3)	부부침실 2 (12.5)	개인방 2 (12.5)

연령대에 따른 여가생활 유형은 30대는 TV보기, 실외운동, 독서, 인터넷, 잠자기 순이고 40대는 TV보기, 잠자기, 실외운동, 실내운동 순이며 50대는 TV보기, 잠자기, 실내운동, 인터넷 순으로 연령에 따른 주된 여가생활 유형은 비슷하게 조사되었지만 30, 40대가 50대에 비하여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2) 여가생활 배려 필요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주거 공간에서 남성의 여가생활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수는 3.26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보아 주거 공간에서 남성의 여가생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유형에 따른 여가생활 배려 필요성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3세대 가족이 1,2세대 가족에 비하여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3> 주거공간에서 남성의 여가생활 배려의 필요성

변인	f(%)			
	매우 필요하다	있는 편이 좋다	없어도 된다	필요없다
배려필요성 (평균 3.26)	37(34.3)	62(57.4)	9(8.3)	0(0.0)

*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을 많이 느낌

<표 4> 가족 유형에 따른 주거공간에서 남성의 여가생활 배려 필요성 차이

가족 유형	변인	여가배려 필요성	F값
	본인+부인		
가족 유형	본인+부인	3.00 A	3.446*
	본인+부인+자녀	3.21 A	
	본인+부인+자녀+부모	3.80 B	
	기타(독신, 본인+자녀)	3.25 A	

3) 업무공간 실태

업무장소는 오직회사 (42.7), 집과 회사(31.1), 야외(23.3), 재택근무(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에서 조사대상자의 34%가

집에서 업무를 본다 했을 때 이중 45.7%는 거실에서, 22.9%는 개인방에서, 11.4%는 부부침실에서 업무를 본다고 나타났다. 주거공간에서 업무를 볼 때 느끼는 불만은 식구들이 드나들어 집중이 안되고 시끄럽고 좁으며 업무용 가구나 집기가 미흡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따라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격리되고 적정면적이 확보된 별개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업무공간

변인	f(%)	
	집(재택근무)	
업무장소	집(재택근무)	3(2.9)
	집과 회사	32(31.1)
	오직회사	44(42.7)
	야외(주로 외근)	24(23.3)
주거공간에서 업무 공간	거실	16(45.7)
	부부침실	4(11.4)
	자녀방	3(8.6)
	가족 여윌방	3(8.6)
	개인방	8(22.9)
주거공간에서 업무 볼 때 불만 (중복응답)	식당	1(2.9)
	1위 식구들이 드나들	25(71.4)
	2위 시끄럽다	20(57.1)
	3위 좁다	12(34.3)
	4위 업무용 가구 미흡	11(31.4)
	5위 육아, 가사일 신경	8(22.9)
	타용도와 혼합	8(22.9)
	7위 전기,통신망 미흡	5(14.3)

직업에 따른 업무장소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직/기술직은 집과 회사, 사무직/관리직은 회사, 서비스직/영업직은 야외에서 비교적 차이가 나타났다.

4) 가사생활 실태

가사생활 실태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가사노동 참여 정도와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6 참조).

<표 6> 가사노동 참여 정도와 가족과의 어울림 정도

변인	f(%)			
	자주(4점)	가끔(3점)	거의(2점)	전혀(1점)
가사노동 참여 (평균 2.82)	21(19.4)	51(47.2)	32(29.6)	4(3.7)
가족과 어울림 (평균 3.24)	45(41.7)	48(44.4)	11(10.2)	4(3.7)

가사노동 참여점수는 평균 2.82점, 가족과의 어울림 점수는 3.24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가사노동에 자주 또는 가끔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85%의 조사대상자가 집안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보아 가사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엌에 남성 배려가 필요하고 이는 가사노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도 남성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남성의 공간과 남성 배려요소

1) 남성 공간에 대한 실태 및 의식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29.6%만이 자신 개인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방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94.7%가 자신만이 사용하는 공간을 가지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남성공간의 형태는 나만이 사용하는 독립된 방(62.5%),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독립된 방(25.0%), 다른 용도의 공간(거실, 부부침실, 자녀방 등)에 한 코너(11.5%)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자신만의 독립된 방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된 방을 원하는 경우 적당한 평수로 5평, 10평, 3평, 4평, 2평의 순으로 평균 5.79평이 남성공간의 적당한 평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너를 원하는 조사대상자는 후면발코니(33.3), 거실(25.0), 부부침실(16.7) 등에 코너를 놓고 싶다고 하였다.

<표 7> 주택 내 남성의 공간 실태 및 의식

변인		f(%)
개인방 유무	있다	32(29.6)
	없다	76(70.4)
희망여부	원한다	72(94.7)
	원하지 않는다	4(5.3)
남성공간 형태	나만이 독립된	65(62.5)
	가족이 함께	26(25.0)
	한 코너	12(11.5)
	기타	1(1.0)
적당한 평수 (평균 5.79평)	1평 이상~4평 미만	22(23.7)
	4평 이상~7평 미만	44(47.3)
	7평 이상~10평 미만	8(8.6)
	10평 이상	19(20.4)
코너 위치	1위 후면 발코니	4(33.3)
	2위 거실	3(25.0)
	3위 부부 침실	2(16.7)
남성공간 용도 (중복응답)	1위 휴식	63(60.6)
	2위 취미생활	54(51.9)
	3위 업무	34(32.7)
	4위 손님접대	9(8.7)
남성공간과 가까운 장소	1위 거실	45(43.3)
	2위 부부침실	15(14.4)
	3위 공동욕실	11(10.6)
남성공간과 먼 장소	1위 부엌 및 식당	22(21.2)
	2위 창고	14(13.5)
	3위 현관	13(12.5)
남성공간 가구 (중복응답)	1위 책상	79(76.0)
	2위 컴퓨터	73(71.6)
	3위 의자	71(68.3)
	4위 소파	54(51.9)
	5위 책장	51(49.0)
	6위 운동기구	46(44.2)
	7위 프린터,스캐너	42(40.4)
	8위 TV	41(39.4)
	9위 오디오	31(29.8)
	10위 진열대	30(28.8)
	11위 홈시어터	26(25.0)
	12위 미니BAR	13(12.5)
	13위 침대	12(11.7)

	14위	냉장고	9(8.7)
--	-----	-----	--------

남성공간의 용도는 휴식(60.6%), 취미 생활(51.9%), 업무(32.7%), 손님접대(8.7%), 취침(8.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공간과 가까워야한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거실, 부부침실, 공동욕실로 나타났고, 남성공간과 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부엌 및 식당, 창고, 현관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공간에 꼭 배치해야 할 가구에 대하여 책상(76.0%), 컴퓨터(71.6%), 의자(68.3%), 소파(51.9%)를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이상 선택하였고 책장(49.0%), 운동기구(44.2%), 프린터(스캐너)(40.4%), TV(39.4%), 오디오(29.8%), 진열대(28.8%), 홈시어터(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공간의 용도 차이

주택 규모에 따른 남성공간의 휴식용도 사용 여부에는 차이를 x^2 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10~29평에서 휴식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81%로 다른 넓은 평수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에 따라 남성공간의 용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평일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10시간 초과인 조사대상자들이 10시간 이하인 조사대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공간을 휴식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휴일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14시간 이하인 조사대상자들이 14시간 초과인 조사대상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공간을 휴식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다. 남성공간의 업무용도로는 휴일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14시간 초과인 조사대상자들이 더 많이 응답하였고 손님접대 용도로도 휴일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시간 초과인 조사대상자들이 더 많이 응답하였다.

3) 남성을 배려한 요소에 대한 의식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공간에서 남성을 배려한 특화요소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신발소독기 평균 3.14점, 높낮이 조절 가능한 UD세면대 2.98점, 면도용 거울 2.96점, 개별적인 드레스룸 2.96점, 화장실내 간이 속옷함 2.92점, 벽걸이 소변기 2.78점, 신문걸이 2.69점, 반신욕조 2.66점, 세면대 2개 2.66점, 파티싱크볼 (커다란 싱크대 외에 식당 쪽으로 놓인 또 하나의 작은 싱크대) 2.62점, 홈바 2.6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주택 내 남성을 배려한 특화요소에 대한 필요도

변인	f(%)				평균
	매우 (4점)	있는편이 좋다	없어도 된다	전혀 (1점)	
신발소독기	34(31.5)	60(55.6)	9(8.3)	5(4.6)	3.14
UD세면대	30(27.8)	51(47.2)	22(20.4)	5(4.6)	2.98
면도거울	23(21.3)	60(55.6)	23(21.3)	2(1.9)	2.96

드레스룸	30(27.8)	51(47.2)	20(18.5)	7(6.5)	2.96
간이속옷함	25(23.1)	50(46.3)	33(30.6)	.	2.92
소변기	25(23.1)	44(40.7)	29(26.9)	10(9.3)	2.78
신문걸이	17(15.7)	55(50.9)	22(20.4)	14(13.0)	2.69
반신욕조	16(14.8)	52(48.1)	27(25.0)	13(12.0)	2.66
세면대 2개	16(14.8)	49(45.4)	33(30.6)	10(9.3)	2.66
파티싱크볼	19(17.6)	42(38.9)	34(31.5)	13(12.0)	2.62
홈바	21(19.4)	35(32.4)	40(37.0)	12(11.1)	2.60
흡사우나	9(8.3)	40(37.0)	45(41.7)	14(13.0)	2.41
파우더룸	7(6.5)	29(26.9)	54(50.0)	18(16.7)	2.23
욕조앞 TV	5(4.6)	15(13.9)	53(49.1)	35(32.4)	1.90
변기앞 TV	5(4.6)	8(7.4)	55(50.9)	40(37.0)	1.80

*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을 많이 느낌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을 배려한 요소에 대한 필요성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세면대 2개에 대한 필요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수가 4~7명인 집단이 세면대 2개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세면대 2개 필요성 차이

변인		세면대 2개 필요성	t값
가족구성원 수	1~3명	2.58	1.735*
	4~7명	2.84	

<표 10> 집에 머무르는 시간에 따른 남성 특화요소에 대한 필요성

변인	평일 10시간		t	휴일 14시간		t
	이하	평균		이하	평균	
소변기	이하	2.82	.671	이하	2.71	-.751
	초과	2.69		초과	2.85	
간이속옷함	이하	3.11	3.963***	이하	2.96	.563
	초과	2.56		초과	2.88	
흡사우나	이하	2.49	1.416	이하	2.55	1.945
	초과	2.25		초과	2.25	
반신욕조	이하	2.85	3.327***	이하	2.71	.698
	초과	2.28		초과	2.60	
면도거울	이하	3.03	1.348	이하	3.02	.833
	초과	2.83		초과	2.90	
변기앞 TV	이하	1.89	1.784	이하	1.73	-.897
	초과	1.61		초과	1.87	
욕조앞 TV	이하	1.97	1.188	이하	1.88	-.433
	초과	1.78		초과	1.94	
신문걸이	이하	2.72	.457	이하	2.80	1.326
	초과	2.64		초과	2.58	
UD세면대	이하	2.97	-.165	이하	3.00	.242
	초과	3.00		초과	2.96	
세면대2개	이하	2.67	.160	이하	2.64	-.185
	초과	2.64		초과	2.67	
드레스룸	이하	2.97	.159	이하	2.95	-.210
	초과	2.94		초과	2.98	

변인	이하		t	초과		F
	이하	평균		이하	평균	
파우더룸	이하	2.19	-.675	이하	2.11	-1.681
	초과	2.31		초과	2.37	
파티싱크볼	이하	2.65	.519	이하	2.68	.685
	초과	2.56		초과	2.56	
홈바	이하	2.72	2.146*	이하	2.71	1.325
	초과	2.35		초과	2.48	
신발소독기	이하	3.15	.304	이하	3.16	.311
	초과	3.11		초과	3.12	

집에 머무는 시간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평일은 10시간 이하 그리고 주말은 14시간 이하 집에 머무르는 조사대상자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고 정하였다. 집에 머무는 시간에 따른 남성 특화요소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집단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집단보다 남성 특화요소에 대한 필요가 더 높다고 나타난 요소가 과반수이상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 결과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게 거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다.

5) 남성이 배려된 주택에 입주 의사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표 11> 남성이 배려된 주택 입주 의사

변인	f(%)		
	입주하고 싶다 (3점)	상관없다 (2점)	싫다 (1점)
입주 의사 (평균 2.55)	60(55.6)	47(43.5)	1(0.9)

남성이 배려된 주택에 입주 의사에 대해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결과는 <표 11>와 같다. 전반적으로 입주 의사는 평균 2.55점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55.6%가 매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입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이 배려된 주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거 공간에 남성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입주 의사의 점수가 높다고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이는 향후에는 남성이 배려된 주택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2> 연령에 따른 남성이 배려된 주택에 입주 의사 차이

연령	변인	입주 의사 점수	F값
	30대(30~39세 이하)	2.73 B	
40대(40~49세 이하)		2.58 B	
50대(50~59세 이하)		2.22 A	

IV. 결론

1. 결론 및 제언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의 종류가 많아져 남성이 집에 머무는 시간

이 늘어나고 여가 생활 문화와 성 역할의 변화 등의 삶의 가치가 변화하였지만 주거공간내의 남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의 변화와 삶의 가치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의 제시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배려 요소가 특화된 아파트 공간 계획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남성들은 TV보기, 잠자기, 인터넷 검색 등 주로 정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에서의 여가공간은 주로 거실과 부부침실로 한정되어있었는데 거의 모든 응답자가 주거 공간에서 남성의 여가생활을 배려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만족스런 여가생활을 위하여 주거공간에 남성의 여가생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응답자 1/3 정도의 남성들은 주거공간에서 회사의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가족과 공간적, 심리적으로 격리되고 적정면적이 확보되며 필요한 설비 및 집기가 갖추어진 별개의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가사노동 참여 정도에는 가끔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집안에서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과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도 남성의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남성의 공간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개인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중 대다수가 자신의 공간을 희망하고 있었고 또한 남성을 배려한 주택에 입주 의사가 높았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이 계획된 아파트가 개발, 공급 되어야 하겠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공간에 남성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별개의 방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일정 공간의 코너의 형태라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남성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집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개인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여 아파트 평면 개발에도 남성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남성공간과 특화요소를 마련하고 가족 중심적인 생활공간에도 남성을 배려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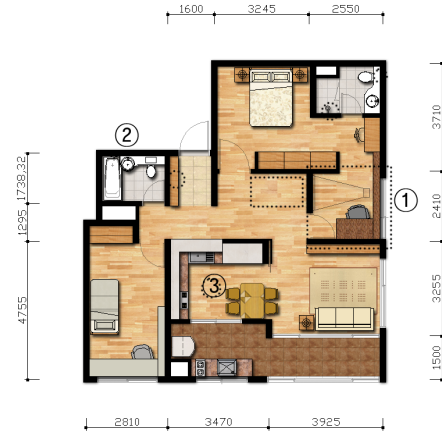
2. 시나리오에 기반한 남성 배려 요소가 특화된 아파트 공간 계획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남성 배려 요소가 특화된 아파트 공간을 계획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30대 남성

주택 규모	84㎡ (구 25평)
-------	-------------

가족 구성	부인+자녀1
남성 주요구	① “나만이 공간 옆에 아이들과 함께 영화감상 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여 독립되면서도 가족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싶다.” ②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UD세면대는 키 큰 나와 작은 아이에게 편리할거 같다.” ③ “가사노동에 자주 참여한다.”(남향부엌)



시나리오 2. 40대 남성

주택 규모	147㎡ (구 44평)
가족 구성	부인+자녀1+부모2
남성 주요구	① “맞벌이 부부이기에 부부침실에 세면대가 두 개면 아침 출근이 편할 것이다.” ② “부모님과 함께 살기에 거실보다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 TV시청이나 독서를 하며 쉬고 싶다.” ③ “골프퍼팅할 수 있는 공간과 휴바가 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1. 박영순 외3(1997) 재택근무를 위한 주거공간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2. 와타나베 다케노부(1997) 주거공간의 의미
3. 최병숙, 박정아(2008) 여성공간을 중심으로 본 수도권 아파트의 공간구조 변화